

■ 광주 다사랑 병원 알콜중독 환자들의 '3·1절 마라톤'

“인생 마라톤’ 출발선에 다시 서야죠”

“길고 길었던 술과의 악연을 끝내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뺨갠게 상기된 얼굴로 광주일보 주최 '제42회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5km 결승선을 통과한 방민영(가명·35)씨는 하늘을 올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뒤늦게 말문을 연 방씨는 2년째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인 광주 '다사랑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다.

그의 얼굴에는 출발 때와는 또 다른 각오가 느껴졌다. “무척 망설였는데, 완주를 하고 나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술에 취해 보내버린 시간 들은 잊고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출발선에 다시 서겠습니다.”

21살의 나이에 뒤늦게 배운 술이 그의 삶을 뒤흔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부산에서 유압계 만드는 공장에 다녔던 방씨는 외로울 때 마다 술잔을 기울이고는 했다. 일 끝날 때, 속살할 때, 잠이 안 올때. 이렇게 한잔한 한잔 술이 어느새 곁잡이를 수없이 만들었다. 아침에 깨어 보면 낯선 곳에서 자고 있는 날도 많았다. 하룻밤에 술값으로 월급을 탕진하기도 했다. 이를 보다 못한 가족의 권유로 '다사랑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술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밤도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술 대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목표를 설정해 끈기를 키울 수 있게 하자니 취지로 마련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운동 시간만큼은 술 생각도

환자·직원·가족 등 42명 전원 완주

“땀방울이 술이라 생각하고 뛰었다”

있고, 흘리는 땀방울이 그동안 마신 술이라 생각하며 뛰었다.

“다음 대회에는 10km에 도전할 겁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이번 마라톤 완주를 계기로 부쩍 자신감을 얻은 그는 오는 11월 퇴원을 목표로 재활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

하프 코스 출전 선수들의 모습이 뜰해 질 무렵, 병원 식구들의 환호성이 울리고 장진형(가명·43)씨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술과의 기나긴 싸움을 했던 그는 지금은 이 병원 관리과 직원이다. 딸의 간곡한 호소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06년에 '다사랑 병원'을 찾아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병원에 취직까지 했다.

장씨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흐뭇해했다. 장씨의 딸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아빠 화이팅”을 외쳤다.

환인복 이사장은 “마라톤은 목표가 분명한 운동이라 환자들에게 의

욕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회 참가를 준비했다.”며 “알코올 중독 치료는 스스로가 이겨내야 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면이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사랑 병원”에선 이번 대회에 환자 6명과 신재정 원장을 포함한 직원 및 가족 등 모두 42명의 병원 식구들이 결승선을 통과했다.

“마라톤이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지만 이렇게 함께 달리면 결코 힘들거나 외롭지 않고, 결국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결승선에서 서로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이들은 결승선에서 서로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다사랑 병원 환자와 직원들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출발에 앞서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위취량기자 jrwi@kwangju.co.kr

대학가 등록금 협상 난항

지역 대학 학생회 “법·제도개선 연계 투쟁”

이들은 특히 토론회 개최나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대학 내부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 한편 교육·사회단체와 연계해 올 연말 대통령 선거 후보 등을 대상으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

았다. 또 각 대학별로 학생 권익 신장을 위한 운동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전남대의 경우 ▲내년에 실시될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권 확보 ▲등록금 인상을 다루는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

이 학부도 대표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기존 교수평의회를 대학평의회로 전환하고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 등을 대학 측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학원자주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등록금 인상 저지 등과 관련해 지금은 총장실 점거나 단식투쟁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나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필요하다 판단되면 이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 제88주년 3·1절 행사 다채

제88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기념식·사이클·시민경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1일 오전 10시에 박광태 광주시장 등은 광주시민회관에서 3·1절 기념식을 갖은 뒤 현충탑에 참배하고 '민주의 종'을 타종했다.

박준영 전남지사 등도 같은 시각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에서 기념식을 갖고 유달산 3·1 운동탑을 참배했다.

황일봉 광주시 남구청장과 남광주

청년회소 회원 등은 남구관내 50여 가구에 태극기를 달아주고 '사랑의 쌀' 30포대와 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

이 밖에 광주학생운동기념탑 주변에서는 3·1절 기념식 및 걷기대회가 개최됐고, 감진군에서는 일반부·고등부 등 60개 팀 450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기념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가 열렸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에 또 편의점 강도

광산구 소촌동... 흥기 위협 현금 빼앗아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사건에 강력 대응기로 한 지 하루도 못돼 편의점 강도도 또 발생했다.

1일 새벽 1시 50분경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모 편의점에 30대대 보이는 남자가 침입, 종업원을 흥기로 위협하고 현금 4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이 170cm의 키에 모자를 썼다”는 종업원의 진술 등을 토

대로 동종의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정봉태 청장을 비롯한 각 경찰서 생활안전·수사·형사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잇따른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살은 인간의 가장 미련한 행동”

이여령 前 문화부장관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여령(사친) 전 문화부 장관이 쉽게 죽음을 택하는 젊은이들을 따끔하게 꾸짖었다.

이 전 장관은 1일 포털사이트 '영삼성닷컴'(youngsamung.com)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살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어서는 감성이 풍부하고 선택엔탈한 감정에 빠지기 쉬워 엔지 젊어서 죽는 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 보면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전 열세 철학자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자살이라고 미화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전염병이 돌 때 가장 먼저 피신했다”며 “젊을 때는 이상하게 사는 게 멋있어 보일 때지만 삶의 본능이 승고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필뉴스

학생 수백대 때린 대구 교사 ‘상해죄’

정당한 징계권을 넘어서 교사의 과잉체벌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1일 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백 차례에 걸쳐 회초리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벌에 사용된 회초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나원침 (7066) 김광두



광주광역시 시민의 중심특별을 누리는데 3.636 최대연계! (광안동 4·5명당 1명씩 무료) 수권선도시 피오리

무허가 석재 채취 30대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허가없이 석재를 채취·판매해 2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J건설 직원 장모(39·광주시)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혐의로 불합야 조사중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낮술 운전자 도로 한가운데서 ‘쿨쿨’

○~20대 회사원 이 씨에 의해 도로 한 가운데 승용차를 세워놓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으나, 달미.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6)씨는 이날 오후 1시 5분경 만취한 채 광주시 북부 용전동 용전사거리(8차선)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문도(37)경사를 매달고 5m가량을 달아나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됐는데, “잠심막다 낮술 몇 잔한 것이 이렇게 됐다”며 뒤늦은 후회.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public interest cases and their details.

Cell Banking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heart graphic with the text 'Cell Banking' and details about services and branches.